



대내외적 여건변화와 수원시 도시정책 방향에 주는 시사점

허재완 수원시정연구원 이사장
hur5358@naver.com

요약

대내외 환경변화

① 신냉전시대 도래와 탈세계화

- 국토개발축의 전환 : 남해안시대의 도래
- 경부축이 수도권 주개발축으로 위상 강화



② 한국경제위기 : 저성장 장기화

- 재정피폐화로 '도시의 위기' 초래
- 위기강도는 산업구조 다양성에 따라 상이



③ 과밀화에 대한 인식 변화

- 코로나19, 이태원 사태에 따른 과밀사회 및 과밀도시에 대한 불안 확산



④ 지역간 도시개발경쟁 가속화

- '화성' 경기도 수위도시로 부상 전망
- 인구추계상 '36년 수원시 인구 역전 전망



수원시 대응전략

| 동반성장 측면의 서수원 "특화발전"

- 동/서 균형을 위한 수원형 동반발전전략 마련
- 동수원 도시관리방향에 대한 정책적 대응 필요

| 산업구조의 다양화를 위한 기업유치

- 접근성·가격경쟁력을 내세운 서수원권 전략산업 육성
- 다국적기업 유치를 위한 니어·프랜차이즈어링 전략 마련

|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한 "Fun City" 전략

- 서울 집중 인프라 분산을 위한 수원의 역할 모색
- 경기남부권 청년층 유입을 위한 매력적인 도시공간 조성

| 경기도 수위도시 위상 유지 전략

- (대안1) 삶의 질 중시론 : 시민중심 도시정책
- (대안2) 수원-화성(오산) 통합론 : 한국 제3의 도시
- (대안3) 수위도시 유지론 : 도시개발

여건변화[1]. 미중갈등과 우크라이나사태, 그리고 '신냉전시대' 도래

□ 신냉전시대의 도래와 탈세계화(De-globalization)

- 신냉전체제는 국제적 경제교류를 막는 '이념적 장벽'이 다시 세워지는 것
 - ⇒ 글로벌 신냉전구도 : 민주가치 중심진영 VS. 권위주의 체제 중심진영
 - ⇒ 동북아 신냉전구도 : 한·미·일 중심진영 VS. 북·중·러 중심진영
- 신냉전시대의 새로운 경제질서로서 '탈 세계화(De-globalization)' 등장
 - ⇒ 미국(달러)경제권과 중국(위안화)경제권, 2개의 기축통화를 중심으로 지역경제 블록화
- 국제교역의 새로운 트렌드 → 끼리끼리 교역의 보편화
 - ⇒ 경제·기술등 영역에서 다국적기업의 '탈중국' 및 '탈러시아' 현상 가속화
- 한국정부 대북정책의 전면적 전환 : 유화정책 → 강경정책
 - ⇒ 핵위협에 대해서는 강경한 대응, 남북협력에 매달리지 않고 '쿨(Cool)'한 대응

□ 국토개발축의 전환 : '서해안 시대'에서 '남해안 시대'로

- 지역경제 블록화의 강화로 중국, 러시아를 대체할 교역파트너 필요
 - ⇒ 내수시장이 큰 '남방국가(인도, 호주, 동남아 등)'들과의 교역확대가 유일한 대안
- '경부축'이 수도권 주개발축으로서 위상이 더욱 강력해 질것으로 예상
 - ⇒ 수도권 북부 및 서해안 지역의 위축으로 경부축 남부도시권의 개발압력 증가
- 국토개발축 전환에 따른 수원시 대응 방향

✓ '경부축'에 인접한 동수원 지역이 도시관리 방향에 대한 정책적 대비 필요

- 지속적 도시발전을 위해서는 핵심개발축을 중심으로 한 개발수요 활용전략 필수

✓ 동/서 지역격차가 심화될 것에 대비하여 수원형 "특화발전" 전략 마련

- '균형발전' 측면보다 '동반발전', '특화발전'의 개념의 동-서 상생을 위한 접근 필요

여건변화[2]. 한국경제의 새로운 위기 '저성장의 장기화'

□ 저성장의 장기화는 '도시의 위기'를 초래

- 글로벌 자원전쟁으로 인플레이션 및 무역적자 심화
 - ⇒ 희토류 등 주요 희소 광물, 석유 등의 에너지, 곡물 등 자원의 무기화
- 고물가·고금리의 새로운 시기 도래로 저성장 장기화
 - ⇒ 기업은 리스크와 불확실성 증대로 투자위축, 정부는 국가채무 부담증대로 정부지출 위축, 가계는 가계부채의 부담증대로 소비위축
- 저성장의 장기화는 '도시의 위기'를 초래하며 위기 강도는 '산업구조'에 따라 상이
 - ⇒ 저성장의 장기화는 도시경제 및 재정을 피폐화시켜 도시관리가 불가능
 - ⇒ 다양화된 산업구조를 갖춘 도시 :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위기
 - ⇒ 특정산업 의존적인 산업구조를 가진 도시 : 매우 높은 수준의 위기

□ 저성장의 장기화에 따른 도시위기 최소화 : ‘도시 산업구조 다양화’

- 글로벌 저성장으로 한국경제를 견인하던 반도체산업의 빙하기
⇒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급락 : '22년(51.6조) → '23년(43.4조) → '24년(6~10조)
- 삼성전자의 불황은 ‘수원시 재정위기’ 초래
⇒ 삼성전자 법인지방소득세는 수원시 전체 지방세수입의 약 22%
※ '22년(2,141억) → '23년(1,500억) → '24년(400억)
- 특정산업(기업) 의존적인 수원 산업구조 : 산업구조 다양화 시급
⇒ '22년 수원시 지방소득세 징수액 2,587억원 중 삼성전자 납부액이 87% 차지

✓ 수원의 산업구조 다양화를 위해 기업유치를 통한 전략산업 육성 필수

- 경기지역에 대한 기업선호도를 활용, 서수원의 접근성·가격경쟁력으로 기업 유치

✓ 다국적기업의 ‘니어쇼어링Near-shoring¹⁾’, ‘프렌드쇼어링friend-shoring²⁾’ 전략 활용

- 탈중국 입지전략이 다변화되는 시기에 다국적기업이 선호하는 ①글로벌기업 기입지 지역 ②질 높은 인프라 ③우수인력이 확보된 수원의 경쟁력을 활용하는 Business Park 조성

여건변화[3]. ‘과밀도시’에 대한 시민인식 변화

□ 코로나19와 이태원 참사는 ‘과밀도시’에 대한 경중

- 과도한 집중이 위생·안전·환경적 측면에서 엄청난 재앙이 될 수 있음을 학습
⇒ 이태원 참사로 인해 과밀공간에서의 ‘밀집불안’을 느끼는 시민 증가
⇒ 미국 재난전문가의 이태원 참사 원인으로 과밀에 익숙한 ‘과밀 둔감 사회’ 지적
- 수도권 공간구조 개편을 통한 과밀 완화 필요
⇒ 서울 반경 20km 이내 → 전체 주거지의 64.8% *일본 동경권의 경우 23%
⇒ 서울 반경 20~50km 사이 → 전체 주거지의 33.5% *일본 동경권의 경우 65%
⇒ 서울 반경 20~50km 사이에 더 많은 주거와 일자리, 레저 기능배치 필요

□ 과밀사회 완화를 위한 수도권 공간구조개편과 수원의 선도적 역할 필요

- 왜 그 많은 경기도 젊은이들은 주말에 이태원으로 몰려갔을까?
⇒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9명 중 20대 희생자가 67%, 수도권 거주자는 86%로서 상당수가 경기도 역 20대 였음을 시사
⇒ 힙(hip)하고 트렌드를 앞서가는 문화의 부족 : 경기도 기성도시나 신도시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지만 20·30대의 문화적 감수성을 충족시켜줄 공간은 매우 제한적

1) 기업의 업무 프로세스 일부를 경영 효율 극대화를 위해 다른 기업에 위탁해 처리하는 아웃소싱의 한 방법으로,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에서 아웃소싱하는 것을 말한다.

2) 우호국이나 동맹국들을 중심으로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으로 글로벌 공급망 교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을 말한다.

• 경기도 수부도시 '수원'의 'Fun City' 전략 필요

- ⇒ 엄숙하고 근엄한 도시이미지를 탈피 → 도시,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도시로 전환
- ⇒ 21세기 문화·지식시대 매력적이고 경쟁력 높은 도시는 Fun City
- ⇒ 싱가포르 'Clean City'에서 'Fun City'로 패러다임 시프트 하면서 높은 경쟁력 유지

✓ 수도권 집중 인프라 분산을 위한 수원의 'Fun City' 전략으로 도시패러다임 전환

- 2030 문화감수성 충족시켜줄 매력적인 도시공간 조성, 경기도 유일 4대 스포츠 프로팀 보유 문화 인프라 등 놀기 좋은 도시로 경기남부권 청년층 유입
- 'Fun'을 기업유인 요소로도 활용하여 컨벤션, 레저, 오락 등 Fun개념 복합화

여건변화[4]. 수도권 지역간 도시개발경쟁과 수원의 도시위상 하락

□ 수원의 산업경쟁력 및 지역경제기반의 위축

- 수원을 인접한 도시에서 다수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추진 중
 - ⇒ 화성(7개), 용인(5개), 의왕(5개), 안산(3개) 등 4개 지역 20개 지구
 - ⇒ 수원반경 20km 이내 사업지구의 총 계획인구는 47.6만명
- 용인, 화성, 평택을 중심으로 대규모 반도체 생산거점 조성
 - ⇒ 국가주도로 10년간 510조원 이상 투자, 10만명 이상의 고용창출 예상

□ 화성, 경기도의 새로운 수위도시로 부상 → 수원의 선택은?

- 2036년 이전에 화성이 기초지자체 수위도시 부상
 - ⇒ 2041년에는 '경기도 제2의 도시' 자리마저 용인시에 허용 예상

(단위: 명)

구분	2023년	2030년	2036년	2040년	비고
수원	1,202,299	1,196,392	1,196,602	1,191,201	
용인	1,073,237	1,131,906	1,168,578	1,179,372	
화성	954,161	1,121,520	1,201,167	1,201,167	

| 경기도, 경기도 시군별 장래인구추계(2022)

• 수원의 도시위상 하락에 따른 대안

- ⇒ 수원의 도시위상 하락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 다양한 대안 개진이 예상

✓ 도시위상 하락에 따른 수원시 전략(안)

- (대안 1) 삶의 질 중시론 : 도시 인구규모에 신경 쓰지 않고, 시민들의 '삶의 질' 향상에 정책초점을 두는 방안
- (대안 2) 수원-화성(오산) 통합론 : 역사적 동질성이 있는 수원, 화성(오산)이 통합하여 광역자치단체로 승격할 경우, 부산을 뛰어넘어 한국 제3의 도시로 부상하는 원-원 전략
- (대안 3) 수위도시 유지론 : GB해제 등을 통해 수원의 미개발지 적극 개발, 군공항 이전지를 체계적으로 활용하여 수위도시 유지

※ 본 간행물은 집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수원시정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.